

## 최승희 무용의상의 특성과 현대패션과의 상관성

임 영 자 · 박 유 신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서일대학 의상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Attribute of Seung-Hee Choi's Dancing Costumes and Its Interrelationship with Modern Costumes

Young-Ja Lim and You-Shin Park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Sejo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Seoil Colleg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modern costumes and Seung-Hee Choi's dancing costumes in 1930s. Seung-Hee Choi, who was a dancing pioneer in Korea, introduced the modern dancing costume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we can find Eroticism in Choi's dancing dress. Choi's dancing costume had used gold thread, silver thread, spangle, see-through and a half-naked body clothing that decorated with beads and cords. It is similar to modern costumes in ubjet mttter, silhouette, design, and so on.

Second, the influence of Futurism was in her dancing costumes, that is, it represented asymmetry designs and rectilineal figures.

Third, not only beauty but also a Functionalism was expressed in her dancing costumes. Funtional beauty was shown through bias cut, pleats, slit, and so on.

*Key words* : Choi Seung-Hee, Eroticism, Futurism, Functionalism.

#### I. 서 론

무대의상은 공연의 중심인 연기자의 의도와 연기의 내용을 표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일상복이 갖는 사실적인 한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연기자와 디자이너의 반사실적 표현을 통해 과장되거나 단순화되어 공연을 효과적으로 전개시킨다.

그 중에서도 무용의상은 그 디자인과 무대 위에서 움직임에 따른 형태의 변화로 무용수의 사상

감정을 관객에게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 또한 신체구조를 돋보이게도 하고, 위장하기도 하고, 정적이거나 역동적인 자세의 어떤 면을 강조 또는 동작양식의 구성인자를 증가 또는 대조시킨다. 특히, 폭무에서는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용사에서 이러한 무용복에 큰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한 무용가들이 있다.

프랑스 1581~1681년간의 궁중발레 의상은 장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석을 사용할 정도로 화려하고, 독창적이었으나 무용가 카마르코<sup>1)</sup>(Mare Annde

1) 카마르코: 수직적 무용의 거장으로 명석한 기교가. 앙트르사 카트르(entrechat-quatre)를 연기한 첫 번째 여자 무용수이며 전통주의자. 춤의 인간적, 연극적 요소보다 기술에 더 관심을 두었다.

Cuips Camargo, 1710~1770)는 궁중발레 의상 중 스킷트를 약 10cm나 짧게 하여 다리동작의 아름다운 선과 유연성을 도모하였으며, 같은 시대의 무용가 살레<sup>2)</sup>(Marie Sallé, 1707~1756)는 머슬린의 천을 전신에 감고 자유로운 표현운동을 했다. 또한 현대무용의 시발점이라 불리는 이사도라 던컨<sup>3)</sup>(Isadora Duncan, 1878~1927)은 코르셋과 토슈즈가 춤뿐만 아니라 춤추는 사람의 신체도 결박하여 몸을 기형화한다고 하여, 그것을 탈피하여 미의 건강을 위한 자연적인 무용을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대무용적인 동작과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무용의 춤사위나 의상 등의 변화<sup>4)</sup>가 신무용기에 들어선 193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무용가 최승희가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

최승희는 민족의상 일절이던 1920년대 후반에 형태적 측면에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도입했다는 점과 시기적으로도 조택원과 함께 신무용 제1세대<sup>5)</sup>라는 사실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동작에 따른 움직임의 용이함이 동시에 필요한 무용에서는 특히나 의상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데, 이 두가지 요소를 근대 무용의 초창기에 잘 배합하여 자신의 무용의 삶에도 큰 상승효과를 준 최승희의 무용 의상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일본에 유행한 최승희 활동당시의 의상을 살펴봄으로써 서구의 현대의상이 당시 국내 의상에 끼친 영향을 고찰할 수 있으며, 매우 앞서 있던 최승희 무용의상을 고찰해봄으로써 현대의 기능적 무용 의상 디자인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II. 최승희 활동 시기의 시대적 배경

최승희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시기로 서양과는 달리 일본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에 의해 단시간내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sup>6)</sup>. 근대적인 학교교육은 봉건적인 신분 타파와 남녀평등 사상의 보급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이상과 다양한 서구 문물이 밀려들어 일반 대중들의 의식에도 개화의 새 바람이 일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무용 의상의 경우는 1908년 이전의 전통무용의 의상형태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무용가인 석정막이 1926년 3월 21일에서 23일까지 경성일보 주최로 경성 공회당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신무용 발표회를 가진 것<sup>7)</sup>을 시발로 새로운 사조로 등장한 신무용 의상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신무용은 석정막의 문하를 거친 최승희와 조택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용예술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된다. 우리 문화의 개화기가 일본 식민지 통치를 전후해서 일기 시작했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특수성으로 시작해, 외래문화의 섭취면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다.

### 1. 최승희의 무용 인생

1900년 초반에 '舞蹈'라는 호칭과 더불어 국내에 서양 무용이 도입되었다는 기사가 대한 매일신보에 기록된 이래 우리 나라의 춤은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1926년 경성 공회당에서 베풀어진 석정막<sup>8)</sup> 무용 공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새로운 무용사의 시발점이 된다.

이제까지의 외래 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자 그대로의 예술 무용이었다는 데서 무용 문화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최승희의 오빠인 최승일의 권유로 이 공연을 보고 바로 다음날로 석정막의 수하에 입문하게 되는 최승희는 춤을 천하고 상스러운 것으로 보아 왔던 당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16

2) 마리 살레: 카마르코의 라이벌. 우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가진 무용가로서 기술보다 정신적 고양에 치중하였다.

3) 이사도라 던컨: 1879~1927. 샌프란시스코 출신으로 미국 현대 무용의 선구자.

비실용성과 권부한 계파적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였으며, 이들의 전통적인 의상, 장식, 음악, 기교를 거부하였다. 또한 발레 슈즈를 버림으로써 그녀의 발은 삶으로 충만한 지구와 본질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4) 양승규. 광복50년 무용 변천사 연구. 중앙대, 1997, p.51.

5) 송혜영. 최승희와 신무용의 고찰. 이화여대, 1989, p.5.

6) 임미영. 한국 근대 무용비평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93, p.11.

7) 장인숙. 무용의상의 역사적 변천과 특이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p.45.

8) 석정막. 우리나라에 현대무용을 처음 소개한 일본인으로 던컨의 무용정신과 기법을 일본에 이식한 선구자.

세의 나이로 출연 단신 동경부 무사시사카이에 있는 석정막 무용 연구소에 가서 3년간 수업을 받게 된다. 1927년 석정막의 두 번째 내한 공연에서 최승희는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며, 1928년에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 적선동에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열게 된다. 2년 뒤인 1930년 서울 경성 공화당에서 제1회 최승희 발표회를 가진 뒤 1931년 5월에 문학 청년 안막과 결혼하게 된다. 최승희는 남편의 후원 하에 석정막 문하에 재입문하여 고국에서와는 달리 일본 무용계에서 획기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이와 같이 최승희는 165 cm에 51 kg이라는 타고난 체격 조건과 재능에 힘입어 시대에 부합되는 1930년대의 상징으로서의 무용가의 위치를 확보해 나아가게 된다<sup>9)</sup>.

근대 무용가로서 한국적 소재나 기법을 자신의 창작 춤에 적용하는 입장으로 미국과 유럽에도 진출하여 호평을 받는다. 1944년 동경에서의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1945년 해방되던 해 남편을 따라 월북하여 평양에 <최승희 무용 연구소>를 설립하여 북한 평양과 소련 모스크바에서 후학을 가르치게 된다. 1950년까지 북한 무용계의 제일인자로 활약했으나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되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

그녀는 1930년 제1회 발표회로부터 월북전 1944년까지 매우 많은 작품 활동을 한 것은 최승희 창작 활동의 열의와 의욕을 충분히 반영한다.

또한 무용계의 정병호 교수는 최승희가 보살춤에서 기존에 반하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었던 것에 대해 육체 예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이처럼 최승희 무용에서 의상은 예술을 가능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 2. 최승희 무용의 경향

최승희의 예술 세계는 절충과 조화가 바탕이 되는 창의적인 작업들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예술사에 큰 획을 긋는 업적과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서 그녀가 갖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그녀의 작품은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혼

재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녀의 바탕이 서양의 현대 무용이었기에 한국적 소재와 내용, 전통 음악에 해당하는 작품이 7작품인데 반하여 완벽한 서양 음악과 양식 기법을 사용한 작품이 12작으로 서구적인 특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 19작품 중 16작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중국적 분위기의 작품이며, 그 외 3작품은 일본적 소재 및 음악에 기초한 작품들이다<sup>11)</sup>.

그녀의 서구적 방법에 의한 춤사위는 직선적인 아름다움과 하늘을 나는 듯한 도약과 현란한 회전이었으며, 기계적이고 인위적인 동작이었다. 그러므로 현대무용의 동작과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무용의 춤사위나 의상 등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최승희는 개방이후 일제하 시대에 근대 무용의 불모지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 미래주의 경향의 현대적인 디자인과 격렬한 무용에서의 신체적 자유로움을 깊이 배려한 기능성 의상, 그리고 타고난 신체의 미를 훨씬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반나체로 춤추는 육체 예술 즉 동양 최초의 육체 무용을 선보였다.

한편으로는 압축한 시대적 상황에서도 민족 무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생들이 추던 고전 무용을 무대예술 무용으로 재창조하여 전통무용기의 의상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의 고안과 방법을 시도하였다. 또한 무용뿐이 아닌 음악, 의상 등에 관한 문헌 등을 연구한 최승희의 무용 전반에 걸친 진지함을 알 수 있으며<sup>12)</sup>, 그녀의 후원회 구성원의 직업이 화가, 작가, 배우, 음악가, 수필가 등의 예술인들로서 구성되어 최승희 자신의 예술적 영감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그녀의 의상 디자인에는 한·일 화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러한 디자인을 선별하고 코디하는 최승희의 의상 디자인에 대한 감각 또한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유학 당시 최승희 초기 의상은 유명한 발레리나인 다니 모모전의 어머니가 담당했고 이후에는 이시 이디로오라는 일본인 화가가 담당했으며, 외국 공연

9) 송혜영. 앞의 책. p.11.

10) 정병호. 춤추는 최승희. 뿌리깊은 나무, 1995, p.397.

11) 송혜영. 앞의 책. p.35.

12) 유미희. 여권주의 입장에서 본 최승희 무용 예술 연구. 이화 여대, 1997, p.49.

에서는 파리 전람회 동양 부문에서 일등상을 수상한 김정완 화백이 디자인한 것을 입기도 했다<sup>13)</sup>.

### Ⅲ. 현대 패션과 최승희 무용의상의 특징

패션은 현실성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무대의상은 무대 위에서 끝없는 창작의욕을 표현할 수 있다. 지방시(Hubert De Givenchy)는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을 통해 영화의상을 디자인하였으며, 패션과 예술 교류의 선구자였던 베르사체(Gianni Versace)에게는 발레, 오페라, 뮤지컬의 무대의상 디자인이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하는 창조행위였다. 이브생 로랑(Yves Saint Laurent)과 에릭 모르텐센(Erik Mortensen) 또한 무대의상을 디자인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패션에 대해 무대 의상은 발상의 원천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패션과 무대의상은 디자이너와 예술가에게 발상의 자료를 제공해 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특히 최승희는 무용형식의 변화와 무용소재의 변화뿐 아니라 무대의상과 착용형식의 변화로 무용예술이 예술적 창의력이 존중되는 예술로 접어든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조화를 최고 가치 이념으로 중시하는 글로벌 시대에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테크닉을 접목함으로써 동서양의 융합을 시도하였다<sup>15)</sup>. 1920년대 말경의 한국 신무용도 일본을 통해 그 당시 서구의 여러 각도의 예술 형태를 접하면서 어떠한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특히 무용의상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1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까지의 최승희의 창작무용시기의 의상과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현대 패션의 특징 중에서도 큰 특징인 에로티시즘과 단순성과 비대칭성 그리고 무용의상과 매우 관련이 큰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관성을 찾아보았다.

#### 1. 최승희 의상의 에로티시즘

원시 시대부터 예술의 소재가 되었으며, 인간 본

래의 감각과 사고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 행동에 관한 모든 분야에 깊은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에로티시즘이 최승희 무용의상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최승희가 처음 보살춤을 선보였을 때, “일본 무용은 의상을 통한 표현에만 의존하고 있었으며 육체를 내놓고 춤추는 무용가는 없었다”고 무용 평론가 미쓰요시 나쓰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어깨와 배부위를 드러낸 의상이 무척이나 충격적이었고 거의 나체에 가까운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러나 의상을 자신의 무용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람이 최승희임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노출은 기존의 전례를 깨는 과감성이 있었으며, 그녀의 반나체 보살춤이 지금의 전나체의 스트리퍼보다 훨씬 에로틱 했다는 극우파 작가 이시아 유게오가 그의 저서 <나의 시춘기>에서 말했듯이 부분적인 노출이 완전한 노출보다 에로틱함을 알 수 있다. 에로티시즘이 ‘노출과 나체의 미’라고 할 때 보살춤의 의상인 <그림 1>은 그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보살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연될 때마다 10여종으로 변형되어 공연되었으며<sup>16)</sup>, 화려한 금색 구슬과 악세사리가 매우 화려하고 관능적이며, 인도의 불상과 매우 유사한 의복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슬선으로 가슴과 성기를 살짝 가린 디자인은 관능미를 더욱 유발시키며, 움직임 때마다 드러나는 바디라인이 더욱 고혹적이다. 이러한 무용의상의 특징은 우리나라 1930년대 무용의상 변화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움직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겹겹이 착용한 속옷이 삭제되어 개조되었고 가벼운 합성섬유가 사용되었으며, 금사나 은사로 짜여진 천이 사용되었고 외국 문물에 영향을 받아 스팡글을 무용의상에 도입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 1>의 관은 의상에 비하여 너무 선이 굵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우측은 1997년 존 갈리아노(John Galiano)작품으로 거의 나체에 가까운 디자인과 팔지, 구슬 체인 등 최승희의 보살춤 의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광상곡’의상은 차마끝을 사선처리하

13) 전병호. 앞의 책. p.137.

14) 가재창 편저. 패션 디자이너. 정은도서, 1995, p.4039.

15) 유미희. 앞의 책. p.63.

16) 유미희. 앞의 책. p.64.



<그림 1> 左 ; “보현보살”(1937)

(세기의 마인무용가 최승희) p.143, 右 ; John Galiano의 '97~98 A/W작품(Fashion News, '97. 6) p.30.

여 단을 마치 갈기갈기 찢은 모양으로 하였으며, 피부와 대조적인 색상으로 여성의 곡선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비대칭 경향을 반영한 오블리크 네크라인(oblique neck-line)은 에센트릭(Helen David English Eccentrics)의 '99,00 가을 겨울 컬렉션에 나온 의상에서도 볼 수 있으며, 두 의상 모두에서 섹시함을 더욱 강조하는 홀터 넥을 옆으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두 의상 모두 일정 방향으로 스커트 트임과 네크라인의 트임이 디자인되어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코닝(Koning)은 데콜테(décolleté)와 같은 표현 양식은 직접적인 자극보다는 심미적으로 길들여진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sup>17)</sup>이라고 했는데, 데콜테가 표현된 <그림 2>에서 도발적이면서도 섹슈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현대패션에 있어서 에로티시즘 패션 표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스루 소재가 최승희의 현대무용과 전통무용의상에서도 사용되었다. 최승희



<그림 2> 左 ; “광상곡”(1931)

(세기의 마인무용가 최승희) p.189, 右 ; Helen david English Eccentrics의 작품, (collection III, '99-00 F/W) p.184.

의 무용의상에서 검은색의 원피스에 시스루(see-through) 소재를 사진으로 겹친 의상이 있는데, 현대패션에서도 비치는 소재를 겹쳐서 더욱 관능적인미를 표현하는 쉬어 레이어드(sheer layered)의상을 볼 수 있다.

## 2. 최승희 무용에 표현된 미래주의적 경향

최승희는 현대무용을 하던 시기에 몸의 움직임, 모양과 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순한 색채와 선이 있는 무용복을 입고 춤을 추었으며<sup>18)</sup>, 무용의상에서 상당히 현대적이고 미래주의적인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찍이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유럽 무용 연수를 다녀왔던 일본 무용가들의 무용의상과 동경에서 공연한 세계적인 무용가 파프로바, 이사도라 던컨, 마리 뷔그만, 아르헨티나와 같은 무용수의 무용을 보고<sup>19)</sup> 영향을 받았으리라 본다. 당시 한국은 일본이 받아들인 서구문물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수

17)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교학연구사, 1997, p.113.

18) 유미희. 앞의 책. p.62.

용한 시기로 1910년대의 러시아 발레단의 유럽 공연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았다. 특히 부피가 적어지는 여성복에 자유로운 동작, 유연한 옷감, 대담한 색조에 의한 간결한 표현을 구하는 1910년대의 패션 경향을 흡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같은 시기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예술가 발라(Giacomo Balla)의 의상이 비대칭적으로 재단하여 과거 의상의 지루하고 우울한 느낌이 대칭적인 선에서 온다고 본 관점에서 시작된 비대칭 절개선과 비대칭적인 몸판, 칼라, 넥라인, 소매, 헴 라인과 색상도 비대칭적인 위치에서 사용하였던 측면 또한 최승희 무용의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현대 패션 경향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3>은 미래파 의상의 특징인 다이내믹한 삼각형, 원추형, 나선형 등의 문양과 색상 그리고 몸을 경쾌하고 빠르고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민첩성이 돋보이며, 미래주의가 분석적 입체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하듯 입체주의적인 삼각의 조각을 원피스 형태에 입체적으로 덧붙인 의상으로써 두건 또한 기하학적 문양인 삼각형의 모양이



<그림 3> 左 ; 최승희의 무용의상 (세기의 미인무용가 최승희) p.53, 右 ; Vivienne Tam (collection I '99-00 A/W) p.133.

19) 유미화, 앞의 책, p.69.



<그림 4> 左 ; “습작”(1935) (세기의 미인무용가 최승희) p.190, 右 ; Gianni Versace (Fashion News '97. 10) p. 49.

프린트되어져 있다. 현대 의상인 탐(Vivienne Tam)의 작품 또한 사각형의 천을 원피스에 덧댄 형태로 입체주의적인 성향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림 4>는 역시 미래파 의상의 특징인 비대칭적인 특성과 단순성과 입고 벗기에 편한 편리성이 표현된 것으로 최승희의 “습작”에 나온 투피스 형태와 간결함과 사선적인 컷(cut)을 강조한 베르사체의 의상이 이러한 성향과 함께 한다. 또한 현대 패션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비대칭이 어깨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대 트렌드에 있어서 스포츠 룩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정장류에까지 그 스포츠 룩의 디테일이 보이는데, “습작”의 의상에서의 오른쪽 소매의 굵은 직선 장식은 그러한 성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현대 의상에 비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디자인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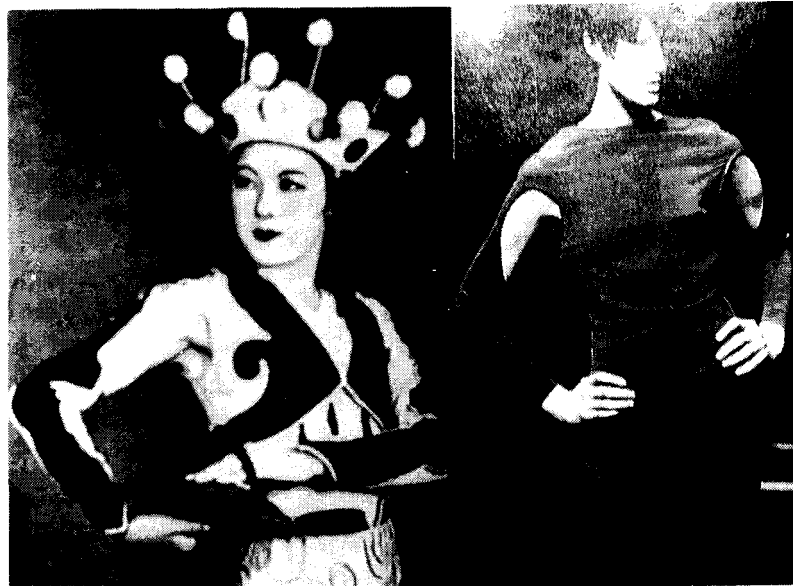
이외의 최승희 현대 무용의상의 대부분이 미래주의적인 간결하고 사선적이며, 다이내믹하고 비대칭적이며, 금속성 소재를 사용한 것에서 현대적 디자인의 의상임을 알 수 있으며, 현대패션에도 나타나고 있는 어시메트리(asymmetry)한 디자인 감각을 볼 수 있다.

### 3. 최승희 무용의상의 기능성

무대의상을 디자인 하였던 박스트도 의상을 춤에 서의 기능적인 아이템 즉, 공간 속에서 신체의 움직임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데 관심<sup>20)</sup>을 두었듯이 무용의상에 있어서 기능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단순한 추상적 아름다움이 아닌 무용동작의 편리함을 주도록 고안되어 미적인 조형성이 탁월한 기능성 의상인 <그림 5>는 일본에서의 최승희 신작무용 발표회 포스터에 나타난 의상으로써 타이트한 볼레로 의상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가슴에서 진동부위 소매 모두가 여유가 없는 밀착된 형태이지만 겨드랑이 위치에 원 모양의 트임을 주어 견부(肩部)의 의욕적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방향, 양, 속도의 3요소<sup>21)</sup>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의상은 미를 의식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도 용도의 기본적인 원리나 기능성을 잘 이해한 후에 미적

시각성을 통해 형성된 형식미인 의장미<sup>22)</sup>가 잘 표현된 것이다. 소매에 있어서 이러한 의장미가 표현된 것은 동, 서양의 옛 복식에서도 나타나는데, 서양의 경우, 르네상스 (Renaissance)시대에 남녀 모두 소매의 디자인이 복잡해지자 구성과 착용에 불편이 생겨 1540년 경부터 소매를 분리시켜 따로 재단하고 구성하였으며, 이때 결합부분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 에플렛(epaulette)<sup>23)</sup>이다. 동양의 경우, 한국은 철릭을 들 수 있는데, 고려말 몽고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전쟁터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좌,우 소매를 각각 뻗 수 있는 경우, 양쪽 모두 뻗 수 있는 경우 등 철릭 소매 모양은 매우 다양했으며, 의장미를 갖춘 형태라 하겠다. 이외에도 1879년에 일본의 속국이 된 류큐왕국의 류큐무용의상 중 하나인 나투구이 부시라는 무용의상의 겨드랑이 부위가 트임되어 있는 것 등 태국의 민속의상에서도 소매 아래부



<그림 5> 左 ; 최승희의 볼레로 자켓 《세기의 미인무용가 최승희》 p.11  
右 ; Tristan Webber (Collezioni Donna(영)A/W N.71) p.22.

20) 김경희. 무용예술의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1999, p. 103.  
21) 小林信次, 김경자, 정화자. 무용미학. 고려원, 1983, p.77.  
22) 小林信次. 앞의 책. p.21.  
23) 정홍숙. 서양복식사. 교문사, 1997, p.170.



<그림 6> 최승희의 바이어스 재단의 드레스(1931)  
(세기의 미인무용가 최승희) p.176.

분이 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디자인은 현대 무용 의상에서도 이제까지 시도한 적이 없는 과감하고도 효과적인 의상이라 할 수 있다. 좌측의 그림은 이러한 동서양의 기능성과 장식미를 잘 결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웨버의(Tristan Webber)의 의상은 신체에 밀착된 형태나 겨드랑이 아래 부분이 타원형으로 파여진 모습에서 의장미를 느낄 수 있다.

최승희 무용의상에서 소재의 자연적인 특성을 활용한 의상을 볼 수 있는데 <그림 6>은 바이어스재단의 드레이프(drape)성을 잘 활용한 의상으로 1926년 커트의 도입에 의해 의상을 신체에 피트시킨 비오네<sup>24)</sup>의 의상을 연상케 한다. 바이어스 재단을 한 유연한 선의 흐름을 살려 자유로운 무용동작에 훨씬 효과적이며, 신축성이 식서보다 크므로 무용동작에 덜 제한적이다. 또한 양 어깨를 드러내어 사선으로 디자인하여 팔 동작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팔 동작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오른쪽 팔에 흘러 내리는 상의 자락을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의상에서도 이러한 바이어스 재단의 활용이 매우 빈번하게



<그림 7> 左 ; 최승희 초기의 튜닉형 의상(1928) (세기의 미인무용가 최승희) p.53.  
右 ; 주름과 접기로 장식한 비대칭 드레스 Moschino Couture, (BAZAAR(한), '99.7) p.204.

24) 마들레네 비오네(Madeleine vionnet, 1876~1975). 바이어스 커트의 발명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7>은 최승희의 초창기 의상으로 튜닉 형의 원피스에 2줄의 셔링처리를 볼 수 있다. 이는 주름에서 생기는 실질적 여유감과 디자인상의 풍성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게 해 준다.

Moschino Couture의 주름과 접기로 장식한 얇은 망사의 비대칭 드레스 또한 인체에 밀착되면서도 주름의 여유량을 포함한 형태로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1930, 40년대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렸던 최승희는 한국인 중에서 신무용을 개척한 한 사람으로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 현대무용의상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서구와 동양의 미를 조화시켰다. 또한 민족무용의상을 가미하여 무대의상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최승희 무용의상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적으로 무용의상이 변화되어 여러겹의 속옷이 생략되고 가벼운 합성섬유를 사용하였던 영향으로 금사, 은사 등 스팅글을 도입시켜 화려함과 함께 인체 실루엣을 투사시켜 연상심리를 이용,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는데, 현대의상의 시스루(seethrough)의상 및 비대칭의 내크라인과 오블리크 백라인 등 현대의상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색사함을 나타내는 디자인에 나체에 가까운 구슬 장식의상으로 여체의 곡선미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주고 있다.

둘째, 미래주의 의상의 특징인 비대칭적 구조, 색채의 다양성, 금속성 소재의 사용이 나타나며, 디아길레프의 러시아 발레단의 의상을 디자인한 미래주의의 여러 작가들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는 현대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대칭적인 디자인과 상통한다.

셋째, 미적 시각성이 돋보이는 기능성 의상이 나타났다. 바이어스 재단, 사선 단처리, 주름을 이용한 여유량 조절, 꼭끼는 볼레로 상의에 겨드랑이 부위를 원 모양으로 트임을 준 의상 등 신축과 이완이 큰 무용동작에 효율적인 의상 디자인이 선보인다.

2000년 춘추 여성복 특징인 원 숄더(one shoulder)

나 원 슬리브(one sleeve), 쉬폰(chiffon), 홀터넥(halter neck), 비즈(beads) 등이 1930년대의 최승희 무용의상에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며, 현대의 십인일색(十人一色)의 획일적이던 사람들의 유행이 현재에 와서 일인십색(一人十色)의 시대로 접어들어 사고의 다양화와 더불어 개성을 표출하는 유행감각을 1930년대의 최승희 무용의상에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패션경향이 일정한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과 한가지의 독선적 경향이 아닌 여러 시대와 여러 민족, 문화, 사회경향이 공존하는 현대 의상의 다양성의 측면을 볼 수 있다. 또한 매번의 패션 쇼가 보여주거만을 위한 쇼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최승희 무용의상은 기능성과 미적 가치를 모두 갖춘 의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빛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최승희 의상은 서구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과 동양의 민족 무용의상을 재창조하였으며, 현대의 시각으로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되며, 창조적인 기능성 의상을 표현하여 그녀의 의상을 연구함에 따른 현대무용의상의 발전이 기대된다.

(색인어 : 최승희, 에로티시즘, 미래주의, 기능주의)

#### 참고문헌

- 강영애. 한국 근대무용사 연구(협을사, 원각사를 중심으로). 정주대, 1995.
- 강이문. 무용의상에 관한 고찰. 이화여대, 1967.
- 강이향, 김채현. 생명의 춤 사랑의 춤-윌북 무용가 최승희의 예술과 삶-. 지양사, 1989.
- 김경희. 무용예술 의상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1999.
- 김근희. 1945~1950년대 신무용사 연구. 경희대, 1974.
- 김민수.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1997.
- 김영미. 무용에 있어서 의상의 역할과 표현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1992.
- 김정은. 무용의상에 대한 역할고찰(한국무용의상). 이화여대, 1991.
- 김지은. 무용의상의 효과적인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93.
- 김태원. 춤에 있어서 의상은 무엇인가. 현대미술사, 1991.
- 류희준. 한국 근대무용과 일본 근대무용 비교연구. 상명여대 교육대학원, 1995.

- 마사그레함, 장명진 옮김. 격정의 기억. 한국언론 자료 강행회, 1992.
- 박명숙. 최승희 예술이 한국 현대무용에 끼친 영향. 한양대 박사논문, 1993.
- 小林信次, 金慶子. 鄭和子공저. 무용미학. 고려원, 1983.
- 송수남. 한국 무용사. 금광출판사, 1989.
- 송해영. 최승희와 신무용의 고찰. 이화여대, 1989.
- 양승규. 광복 50년 무용 변천사 연구. 중앙대, 1997.
- 양취경. 20세기초 예술의상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 1997.
-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교학연구사, 1997.
- 유미희. 여권주의 입장에서 본 최승희 무용예술 연구. 이화여대, 1997.
- 유효춘.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서울굿 무복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임미영. 한국 근대 무용비평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1993.
- 임영자. 돈황비천복식이 현대복식에 주는 의미. 복식 32호, 1997.
- 장인숙. 무용의상의 역사적 변천과 특이성에 관한 연구(한국무용). 경희대, 1994.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1997.
- 허수영. 무용의상의 변천사에 대한 고찰(한국 무용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1996.
- 高島雄三郎, 鄭炳浩편저. 世紀の美人 舞踊家 최승희. 엠메이출판, 1994.
- BAZAAR(한). 1997. 7.
- Collections I 1999~2000 A/W
- Collections III 1999~2000 A/W
- ELLE, 1999. 7(프)
- Fashion News, 1997, 6.
- Fashion News, 1997, 10.